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요구도 및 지식정도 : 그 실태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Parent Education for Mothers of Toddlers : Trends in Need and
Knowledge Level Related to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도현심(Hyun-Sim Doh)¹⁾

이선희(Sun-Hee Rhee)²⁾

오유리(You-Lee Oh)³⁾

김경미(Kyung-Mee Kim)⁴⁾

최규리(Kyu-Ree Choi)⁵⁾

강나현(Na-Hyun Kang)⁶⁾

ABSTRACT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07 mothers of toddlers;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on their need for and knowledge level of parent education,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others indicated high need for parent education; their knowledge level was moderate. Most mothers answered they'd like to participate in a parent education program; their preference was for small group programs implemented for 1-2 hours in the morning on weekdays for six sessions. Mothers with more knowledge of parenting information for toddlers showed higher parenting efficacy and experienced less parenting stress.

Key Words : 부모교육 요구도(need for parent education), 부모교육 지식정도(knowledge level of parent education),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¹⁾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아동학협동과정 교수

²⁾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협동과정 박사과정

³⁾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협동과정 석사

⁵⁾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협동과정 석사과정

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협동과정 석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t. of Psychology/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I. 서 론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녀양육행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부모자녀관계를 강조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는 부모에게 자녀양육정보와 기술을 포함하여 보다 실제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부모교육 관련 연구들은 특히 기존 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기초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시도해 오고 있다(김정옥 · 구향숙, 2006; 김정원 · 이기숙, 1999; 원성희 · 유영달, 2006). 동시에, 몇몇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참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부모가 실제 원하는 교육내용이나 실행방법, 즉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 자신의 요구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주로 유아기 혹은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들에 초점을 두어(김영수, 2003; 나중혜 · 김수연 · 안영규, 2005; 민숙영, 2005; 박은숙, 2006; 윤소영, 2002; 이랑, 2003; 이원영 · 배소연, 2000; 정문자, 1992; 최미경 · 신정희 · 구현경 · 박선영 · 한현아 · 최단비, 2008; Crase, Carlson, & Kontos, 1981; Jacobson & Engelbrecht, 2000), 유아기 이전의 발달단계에 속한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영아기를 지나 특히 언어 및 인지적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걸음마기의 발달특성과 자율성 획득이라는 발달과업(Erikson, 1950)을 고려해 볼 때, 걸음마기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양육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생후 초기에 속하는 걸음마기 역시 다른 발달단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양육행

동은 아동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선행 연구의 예를 들면,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긍정적 양육은 아동의 순종행동을 발달시키는 반면,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억제를 증가시켰다(박성연 · 신영아, 2007; 정옥분 · 박성연 · Rubin · 윤종희 · 도현심, 2002). 또 다른 예로, 어머니가 애정-자율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고 거부-통제적 양육행동을 덜 보이는 경우 자녀는 문제행동을 덜 나타내었다(김보영, 2005). 따라서, 좀 더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어린 연령층인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가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교육 요구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된다. 그 중 하나는 부모들이 부모교육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정도를 살펴본 내용적 측면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와 관련하여 부모들의 선호도를 살펴본 실행적 측면이다. 먼저 부모교육 요구도의 내용적 측면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녀의 각 영역별 발달, 행동수정을 포함하여 자녀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과 같은 일상 속의 부모역할, 환경구성, 자녀와의 의사소통, 건강 · 영양 · 안전지도,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자질향상 등에 관한 요구도를 살펴보았다(김정원, 1998; 김지은, 2002; 윤소영, 2002; 이원영 · 배소연, 2000; 정문자 · 어주경 · 김혜금, 1992; 정영숙 · 전은희, 1996; Jacobson & Engelbrecht, 2000). 예를 들면, 아동발달에서는 정서, 사회성 및 인지 발달, 아동양육과 건강에서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안전사고와 응급조치,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는 효과적 대화에 대한 요구도가 포함된다(이원영 · 배소연, 2000; 정문자 · 어주경, 2000; 정문자 · 어주경 · 김혜금, 1992).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들은 대체적

으로 아동발달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요구가 높았으며(정문자·어주경, 2000, 정문자·어주경·김혜금, 1992), 특히 창의성 발달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정문자, 1992; 정문자·어주경, 2000; 정문자·어주경·김혜금, 1992). 각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양육과 건강 영역에서는 안전사고 및 응급조치(윤소영, 2002; 정문자·어주경·김혜금, 1992)와 성폭력 안전지도(이원영·배소연, 2000)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아동행동수정 영역에서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 고치기(정문자·어주경, 2000; 정문자·어주경·김혜금, 1992)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자녀양육정보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바람직한 대화방법(박은숙, 2006; 윤소영, 2002; 이원영·배소연, 2000)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유아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러한 연구결과를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 관리, 그리고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 등 각 영역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부모교육 요구도의 실행적 측면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부모들이 선호하는 진행 및 교수 방식, 요일 및 시간, 빈도, 교육담당자, 1회기 교육시간, 장소 등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윤소영, 2002; 정문자·어주경·김혜금, 1992; 정영숙·전은희, 1996). 진행 및 교수 방식과 관련하여, 몇몇 국내 연구들은 부모들이 강의나 강연을 선호한다고 보고한 반면(정문자, 1992; 정문자, 어주경, 2000; 정문자·어주경·김혜금, 1992), 국외연구들에서는 부모들이 실습을 보다 더 선호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Crase, Carlson, & Kontos, 1981;

Jacobson & Engelbrecht, 2000). 또한,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일 및 시간은 수요일이나 금요일 오전 10-12시와 같이 주중 오전 시간이었다(김영수, 2003; 민숙영, 2005; 정문자, 1992; 정문자·어주경, 2000). 1회 부모교육 시간으로는 2시간 이내(민숙영, 2005; 박은숙, 2006; 정문자, 1992)와 1시간(정문자·어주경, 2000)을 선호하였으며, 부모교육 실시자로는 부모교육 혹은 유아교육 전문가(박은숙, 2006; 윤소영, 2002; 정문자, 1992)를 선호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운영방식에 더하여,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만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여부 의사나 교육회기, 수강인원에 대한 요구도 등에 관해서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항을 추가하여 걸음마기 자녀의 어머니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교육 요구도에 더하여, 부모가 자녀양육과 관련된 각 영역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는 정도, 즉 지식 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의 있는 일일 것이다. 이는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해 부모에게 필요한 양육지식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674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와의 의사소통, 행동수정, 교사로서의 역할 등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식정도를 살펴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말에 관심 갖고 듣기,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구별하기, 동화 들려주기 등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문자·어주경, 2000). 또한, 만 3-6세 자녀를 둔 359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타인의 말 경청법, 좋은 습관과 행동을 가르치고 유지시키기, 장난감으로 놀아주기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윤소영, 2002).

한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김현미·도현심, 2004; 안지영·박성연, 2002; 조영숙, 2008).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 및 신념을 의미하며(Brody, Flore, & Gibson, 1999),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에서 느끼는 특정한 스트레스 유형으로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 정도나 부담감을 뜻한다(Abidin, 1992). 따라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들은 적절한 대처행동을 시도하는 반면(Johnston & Mash, 1989), 자녀양육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부적절하게 양육하기 쉽다(Abidin, 1990; Belsky, 1984). 즉,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이 높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스트레스를 적게 느낄수록 부모는 애정적·합리적 지도와 같은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이고(김미숙, 문혁준, 2005),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높은 일관성을 보였다(김현미·도현심, 2004).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근거해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는 부모교육 내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와 알고 있는 정도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가 다르리라 가정된다. 즉, 부모교육 요구도가 높은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며 동시에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부모는 이로 인해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며 동시에 양육스트레스를 덜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간의 밀접한 관계는 선행 연구결과(이랑, 2003)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가정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몇몇 연구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안희정(2005)에 의하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비해 양육효능감은 증가한 반면 부모 불안감은 감소하였다. 공격적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서 유아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였다(김민정, 2008). 그 외에도,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및 지식정도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밀접한 관계는 청소년기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행된 최근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자녀의 적성 및 진로,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향상에 대한 요구도가 높을 때 어머니의 불안과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양육효능감과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였다(최미경 외, 2008). 부모교육의 주요 목표는 양육행동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에도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및 지식정도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걸음마기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내용 및 실행에 대한 요구도를 비롯하여,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정도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한,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및 지식정도가 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자녀양육정보,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 관리, 그리고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

질 향상 등 부모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요구도 및 지식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 참여한 프로그램의 회기 유형과 도움정도,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사 및 프로그램의 선호하는 운영방식 등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하여,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요구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및 지식정도는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18-36개월 걸음마기 아동(평균 : 26.6, 표준편차 : 5.58)을 자녀로 둔 207명의 어머니들이다. 본 연구의 대상을 걸음마기 아동의 어머니로 선정 한 이유는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자율성 습득이 주요 발달과업인 걸음마기의 발달특성(Erikson, 1959)에 적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앞서, 이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보다 실제적인 부모교육 요구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근거한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은 남아가 107명(51.7%), 여아가 100명(48.3%)이었고, 아동의 연령은 18-24개월이 81명(39.1%), 25-30개월이 60명(29.0%), 31-36개월이 66명(31.9%)이었다. 아동의 출생순위

는 외동이 혹은 첫째가 116명(56.0%), 둘째가 81명(39.1%), 셋째 이상은 10명(4.8%)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35-39세(43.5%), 어머니는 30-34세(54.1%)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각각 50.7%와 43.0%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가장 많았고(42.0%),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64.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가정의 월소득은 250-450만원 미만(44.0%), 450-650만원 미만(23.7%), 250만원 미만(17.4%) 등의 순이었다(<표 1>).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부모교육의 내용적 및 실행적 측면에서의 요구도(이하, 부모교육 요구도)와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정도(이하, 부모교육 지식정도)를 비롯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된다.

1) 부모교육 요구도 및 지식정도

부모교육 요구도 및 지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정문자·어주경·김혜금(1992)과 윤소영(2002)을 기초로, 걸음마기 관련 서적들(김숙경, 2000; 이보연·박중권, 2005; 이은화·김영옥, 2000; Murphy, 2004)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부모교육 요구도 척도는 내용적 측면과 실행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내용적 측면으로 는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15문항),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19문항),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8문항), 그리고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4문항) 등 네 가지 영역이 포함된다. 각 영역의 문항내용을 살펴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07)

변인	빈도(%)	변인	빈도(%)
성별		출생순위	
남아	107(51.7)	첫째	116(56.0)
여아	100(48.3)	둘째	81(39.1)
		셋째 이상	10(4.8)
아동의 연령		월 소득	
18-24개월	81(39.1)	250만원 미만	36(17.4)
25-30개월	60(29.0)	250-450만원 미만	91(44.0)
31-36개월	66(31.9)	450-650만원 미만	49(23.7)
		650-850만원 미만	16(7.7)
		850만원 이상	14(6.8)
		무응답	1(0.5)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30세 미만	7(3.4)	30세 미만	23(11.1)
30-34세	85(41.1)	30-34세	112(54.1)
35-39세	90(43.5)	35-39세	61(29.5)
40-44세	20(9.7)	40세 이상	11(5.3)
45세 이상	5(2.4)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교육수준	
고등학교 중퇴, 졸업	35(16.9)	고등학교 중퇴, 졸업	45(21.7)
전문대 졸업, 대학교 중퇴	25(12.1)	전문대 졸업, 대학교 중퇴	47(22.7)
대학교 졸업	105(50.7)	대학교 졸업	89(43.0)
대학원 이상	41(19.8)	대학원 이상	26(12.6)
무응답	1(0.5)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무직	1(0.5)	전업주부	137(64.7)
노동직	3(1.4)	노동직	4(1.9)
생산감독 및 서비스직	6(2.9)	생산감독 및 서비스직	4(1.9)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	27(13.0)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	3(1.4)
일반사무직, 보안업무	12(5.8)	일반사무직, 보안업무	6(2.9)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	87(42.0)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	40(19.3)
전문직	45(21.7)	전문직	10(4.8)
고위관리직	8(3.9)	기타	6(2.9)
기타	18(8.7)		

보면,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영역의 경우 ‘사회·정서발달’, ‘지능발달’, ‘언어발달’ 등이,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 영역에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법’, ‘올바른 칭찬·격려하기’, ‘민주적 자녀양육방법’ 등이,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 영역에는 ‘안전사고

와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질병 및 아플 때 간호하기’, ‘영양관리와 안전한 가정환경 구성’ 등이, 그리고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 영역에는 ‘내가 아이를 기르는 양육방식유형’, ‘나 자신의 분노조절능력’, ‘나 자신의 성인기 발달특성’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전혀 필요하

지 않다'(1점), '별로 필요하지 않다'(2점), '약간 필요하다'(3점), '매우 필요하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실행적 측면과 관련한 질문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과 참여한 프로그램 회기유형 및 도움정도(3문항),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사(1문항), 선호하는 운영방식(5문항)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부모교육 지식정도는 부모교육 요구도의 내용적 측면인 네 가지 영역 각각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4점 Likert식으로 측정하였다. 즉,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전혀 모른다'(1점), '잘 모른다'(2점), '약간 안다'(3점), '매우 잘 안다'(4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교육 관련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교육 요구도 및 지식정도의 각 영역별 Cronbach's α 는 각각 .82-.93와 .87-.91에 속하였다(<표 2>).

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 (1978)이 개발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번안한 김민정(2008)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SOC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이하, 부모효능감)(8문항)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불안(이하, 부모불안감)(9문항) 등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부모효능감 요인의 경우 '나는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초보 어머니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배울 만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등이, 부모불안감 요인의 경우 '부모 역할은 보상을 주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의 현재 연령수준에서는 좌절감을 느낀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때때로 나는 우리 아이에게 조정 받는 느낌이 든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

<표 2> 각 척도별 문항수 및 신뢰도

(N=207)

척도	문항수	Cronbach's α
<u>부모교육 요구도</u>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15	.89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	19	.91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	8	.93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	4	.82
<u>부모교육 지식정도</u>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15	.90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	19	.91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	8	.88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	4	.87
<u>양육효능감</u>		
부모효능감	8	.72
부모불안감	9	.73
<u>양육스트레스</u>		
부모의 고통	12	.86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12	.89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12	.90

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으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모효능감과 부모불안감의 Cronbach's α 는 각각 .72 과 .73이었다(<표 2>).

3) 양육스트레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양육스트레스 척도(Parenting Stress Index(PSI))를 변안한 김민정(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고통(12문항),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12문항),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12문항) 등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문항의 예로, 부모의 고통 요인에는 ‘나는 종종 내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포기한다’ 등이,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요인에는 ‘우리 아이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들을 거의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우리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등이, 그리고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요인에는 ‘때때로 우리 아이는 나를 짓궂게 괴롭히려는 일들을 한다’,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들보다 좀 더 자주 울거나 안달한다’ 등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으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양육시 각 요인에서의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요인별 Cronbach's α 는 부모의 고통 요인이 .86,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요인이 .89,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요인이 .90이었다(<표 2>).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2007년 2월에 서울시와 수도권 소재의 문화센터(5군데), 병원(4군데), 어린이집(5군데) 등에서 조사되었다. 병원과 문화센터의 경우, 연구자가 걸음마기 연령층의 자녀와 함께 있는 어머니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아동의 연령을 확인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그 자리에서 질문지를 실시·회수하였다(142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교사에게 질문지 조사 방법 및 응답시의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90부의 질문지를 아동 편에 배부하였으며, 그 중 77부가 회수되었다(86%의 회수율). 세 장소에서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부를 제외한 총 207부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5.0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와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및 지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Cronbach's α 값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또한,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및 지식정도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및 지식정도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 그리고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 등 네 가지 영역 각각에 대한 어머니의 요

<표 3>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및 지식정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07)

부모교육 내용	요구도		지식정도	
	M	SD	M	SD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3.65	.32	2.91	.40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	3.67	.31	2.74	.39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	3.69	.45	3.01	.43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	3.51	.49	2.94	.59
전 체	3.63	.31	2.90	.37

구도 및 지식정도의 평균은 <표 3>과 같다. 부모교육 요구도와 관련하여, 각 영역의 평균은 3.51-3.69로서, 어머니들은 전반적으로 네 가지 영역에 관한 내용이 보통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어머니들은 네 가지 영역 가운데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M=3.65, SD=.32),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M=3.67, SD=.31),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M=3.69, SD=.45) 등을 비슷한 정도로 필요로 하였으며,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M=3.51, SD=.49)에 대한 요구도는 다른 세 가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한편,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정도는 평균 2.74-3.01로서, ‘잘 모르는’ 정도와 ‘약간 아는’ 정도의 사이에 속하였다. 각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에 대한 지식수준(M=2.74, SD=.39)은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M=2.91, SD=.40),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M=3.01, SD=.43),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M=2.94, SD=.5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2.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요구도

1)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과 참여한 프로그램의 회기 유형 및 도움 정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살펴본 결

<표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 (N=207)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	빈도(%)
있다	43(20.8)
없다	162(78.3)
무응답	2(1.0)

<표 5> 참여한 프로그램의 회기 유형 및 도움 정도 (N=43)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회기 유형	빈도(%)
일회성 프로그램	40(93.0)
한 번에 2회기 이상 실시된 프로그램	3(7.0)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빈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0(0.0)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0(0.0)
약간 도움이 되었다	25(58.1)
매우 도움이 되었다	18(41.9)

과, 207명의 어머니 중 43명(20.8%)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162명(78.3%)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4>).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어머니들 가운데 참여한 프로그램의 회기 유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일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93%), 이들 가운데 7%만이 ‘한 번에 2회기 이상 실시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에 있어서는 ‘약간 도움이 되었

다'가 58.1%,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41.9%로 나타났다(<표 5>).

2)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사

자녀양육에 도움이 될 만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있다'와 '없다'가 각각 95.2%와 4.8%로 나타났다(<표 6>).

<표 6>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사 (N=207)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사	빈도(%)
있다	197(95.2)
없다	10(4.8)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선호하는 운영방식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요일, 시간대(오전, 오후 혹은 저녁), 1회 교육시간, 교육회기, 수강인원 등에 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7>와 같다. 선호하는 요일의 경우, 60.4%의 어머니들은 월요일(22.7%), 화요일(21.3%), 수요일(6.3%) 등의 주중을, 29.0%의 어머니들은 토요일을 선호하였다. 선호하는 시간대는 오전(46.4%)이 가장 많았고, 오후도 26.1%를 차지하였다. 선호하는 1회 교육시간은 1시간(39.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시간 반(30%), 2시간(25.6%) 순이었다. 선호하는 교육회기에 대해서는 6회기가 4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8회기(19.3%), 10회기(18.8%) 등의 순이었으며, 선호하는 수강인원은 '10명'이라고 답한 어머니가 3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6명과 8명(각각 18.8%), 15명 이상(9.2%) 등의 순이었다.

3.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및 지식정도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1)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부모교육 내용의 네 가지 영역 각각에 대한 요구도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는 양육스트레스의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r=.17, p<.05$). 즉,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어머니들은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보다 많이 지각하였다. 그 외,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간에는 서로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2)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정도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먼저,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정도와 부모효능감과 부모불안감 등 양육효능감의 두 가지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r=.22, p<.01$)와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r=.14, p<.05$)에 대한 지식정도는 부모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자녀양육정보와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부모효능감은 높았다. 반면,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과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향상은 부모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r=-.18, p<.05$),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r=-.23, p<.01$),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r=-.21, p<.01$),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향상 ($r=-.18, p<.01$) 등 네 가지 영역 모

<표 7>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선호하는 운영방식

(N=207, 단위 : 명)

요일	빈도(%)	시간대	빈도(%)	1회 교육시간	빈도(%)	교육회기	빈도(%)	수강인원	빈도(%)
월	47(22.7)	오전	96(46.4)	1시간	81(39.1)	6회기	83(40.1)	4명	9(4.3)
화	44(21.3)	오후	54(26.1)	1시간 반	62(30.0)	8회기	40(19.3)	6명	39(18.8)
수	13(6.3)	저녁	14(6.8)	2시간	53(25.6)	10회기	39(18.8)	8명	39(18.8)
목	9(4.3)	상관없다	35(16.9)	2시간 반	2(1.0)	12회기	5(2.4)	10명	79(38.2)
금	12(5.8)	무응답	8(3.9)	3시간 이상	0(0.0)	기타	30(14.5)	12명	13(6.3)
토	60(29.0)	-	-	무응답	9(4.3)	무응답	10(4.8)	15명 이상	19(9.2)
일	8(3.9)	-	-	-	-	-	-	무응답	9(4.3)
무응답	14(6.8)	-	-	-	-	-	-	-	-

두에서 지식정도는 모두 부모불안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각 영역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부모불안감은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정도와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등 양육스트레스의 세 가지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8>),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와 부모의 고통은 서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r=-.23, p<.01$), 자녀양육정보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은 부모의 고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덜 지

각하였다. 반면,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 그리고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향상은 부모의 고통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r=-.15, p<.05$),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r=-.19, p<.01$),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r=-.18, p<.01$)에 대한 지식정도와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어머니들은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낮게

<표 8>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정도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N=207)

부모교육 내용	양육효능감		부모의 고통	양육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부모불안감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10	-.18*	-.08	-.15*	-.01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 정보	.22**	-.23**	-.23**	-.19**	-.17*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	.14*	-.21**	-.12	-.18**	-.02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	.09	-.18**	-.12	-.02	.03

* $p<.05$ ** $p<.01$

지각하였다.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향상과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영역 중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r=-.17, p<.05$),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은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였다. 반면,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 지식정도, 그리고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향상은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및 지식정도를 비롯해서, 이러한 변인들이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및 지식정도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는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 그리고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 등 네 가지 영역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요구도가 대체적으로 높았던 연구결과들(이원영·배소연, 2000; 정문자·어주경, 2000; 정문자·어주경·

김혜금, 1992)과 유사한 것으로, 어머니들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편임을 나타낸다. 네 가지 영역별 요구도를 비교해 보면, 어머니들은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자녀양육정보,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에 대한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원영과 배소연(2000)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어머니들은 자기 자신보다는 자녀와 관련된 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부모의 양육 방식을 자녀에게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Bowlby, 1973),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많이 하는 어머니의 자녀가 보다 높은 슬픔 및 분노 조절력을 보였던 연구결과(이혜련·최보가, 2004)에 근거해 볼 때,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에 대한 내용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 자신이 어릴 때 경험한 양육방식을 비롯하여 자신의 성격특성 및 분노조절능력 등과 같은 내용은 성인기 발달적 측면에서 어떤 다른 영역 못지않게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정도는 네 가지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요구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윤소영, 2002; 정문자·어주경, 2000)과 유사한 것으로,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대해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양육방법이나 자녀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정도 수준은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부모교육 참여 경험율이 매우 낮았던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낮은 자녀양육경험에 기인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자녀의 출생순위가 외동이나 첫 자녀인 경우가 전체의 56%이었던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각 영역별로 비교해 보면,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에 대한 지식수준은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행동수정과 의사소통과 같이 자녀양육정보에 해당하는 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연구결과(정문자·어주경·김혜금, 1992)와 불일치한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대상인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걸음마기 아동들은 점점 향상되는 언어능력과 더불어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떼쓰기와 같은 전형적 문제행동을 나타내기 쉽다(Erikson, 1959). 이러한 아동행동에 대해 어머니들은 좀 더 커다란 어려움을 지각하기 쉬우며, 나아가 스스로 적절한 자녀양육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지 않다고 지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에 대한 요구도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대부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으며, 부모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더라도 거의 모두 일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부모교육이 영유아보육/교육시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들(민숙영, 2005; 박은숙, 2006; 정문자, 1992)에 근거할 때, 이는 걸음마기 자녀의 부모는 자녀를 시설에 맡기기 보다는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교육 프

그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본 연구대상 아동들 가운데 28.5%만이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인다. 이 외에도, 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률이 77.0%로서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된 선행 연구결과들(정문자, 1992; 정문자·어주경·김혜금, 1992)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정문자·어주경·김혜금, 1992)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일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점은 몇 회기로 구성된 보다 구조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김정옥·구향숙, 2006; 서수정·김태련·이경숙·신의진, 2007)에서 일관적으로 발견되는 긍정적 효과를 보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홍보 방안의 모색 뿐만 아니라 이를 주제로 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결과(박은숙, 2006)와도 유사하다. 이를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요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요일, 시간대, 1회 교육시간, 교육회기, 수강인원 등 선호하는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주중 오전을 선호함으로써, 부모교육 요일 및 시간으로 주중 9-12시를 원한다는 연구결과(박은숙, 2006)와 일치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구대상 아동들이 주로 어머니들에 의해 양육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

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남편과 함께 보내기 쉬운 주말 보다는 자녀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주중 오전에 부모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1회 교육시간으로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1-2시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유치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교육 시간으로 2시간 이내를 원한다는 연구결과(윤소영, 2002)와 유사하였다. 이는 부모교육을 2시간 이상 진행하는 경우 부모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어머니들이 원하는 교육회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8회기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점(권영배, 2005; 김민정, 2008; 도현심·유명희, 1996; 문성혜, 2002; 서수정·김태련·이경숙·신의진, 2007)과 달리, 6회기의 교육회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를 보건대, 어린 자녀의 양육부담을 안고 있는 어머니들로서 8회기라는 교육회기는 매주 정기적인 외출을 시도하기에 다소 길게 지각될 수도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어머니들이 원하는 수강인원은 6-10명을 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요구는 실제로 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이 6-10명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과 일치한다(권영배 2005, 노미경, 2003).

3.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 및 지식정도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부모교육 내용의 네 가지 영역 중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은 어머니들은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를 보다 많이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교육 요구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최미경 외, 2008)와 부분

적으로 일치한다. 부모교육 내용과 양육스트레스의 다양한 하위 영역 가운데 특히 걸음마기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와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로 인한 양육스트레스 간에만 유의한 관계가 발견된 결과는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와 같은 면이 아동에게는 특히 일차적으로 중요한 내용인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아동의 식습관 훈련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갖기 쉽다는 점(문수재·안홍석·이영미, 1994)에 근거할 때, 자녀가 기질적으로 까다로울 때 어머니들은 자녀의 건강이나 영양을 관리를 하는 데 더욱 커다란 어려움을 겪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요구도와 특히 관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다른 영역들의 경우 부모교육 요구도는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던 양자간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와 달리, 지식정도의 네 가지 영역은 대부분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간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먼저, 부모교육 지식정도와 부모효능감 및 부모불안감 등 양육효능감의 두 가지 하위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어머니의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은 높은 반면, 부모불안감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관한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연구결과(송영숙·김영주, 2008)와 일치한다. 이는 자녀양육지식이 높다고 지각하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높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결과로 보인다. 부모교육 지식정도와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걸음마기 아동의 발달, 자녀양육정보, 아동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 그리고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질 향상 등의 네 가지 영역 가운데 특히, 걸음마기 아동을 위한 자녀양육정보가 높을수록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및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 등 세 가지 하위요인 모두에서의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송영숙·김영주, 2008)와 일치한다. 앞서 언급한 양육효능감과 관련성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는 부모 스스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자녀양육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자녀양육지식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게 함과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양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점에서, 걸음마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내용 가운데 하나인 자녀양육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걸음마기 자녀를 둔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반면, 지식정도는 그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들의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매우 부족하였는데, 이는 현 우리나라에 있어 걸음마기 자녀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수준이 얼마나 저조한지를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지각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어머니들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관심 외에도 부모교육 지식정도가 높은 어머니들은 높은 양육효능감과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가정에서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걸음마기 아동의 연령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계층에 속한 연구대상을 표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중류층의 어머니들이 주로 방문하는 문화센터를 포함하여 주변의 병원과 어린이집을 통한 표집 과정에서 본 연구대상은 대부분 중류층의 어머니들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유형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족을 비롯하여 맞벌이 가족, 이혼 가족, 재혼 가족 등 다양한 상황의 부모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다수의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발달 및 사회적응 기술 개발에 아버지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남현미, 1999)에서와 같이 점차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후속연구는 연구대상으로 아버지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걸음마기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관련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와 지식정도를 살펴보고자 시도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확인한 부모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도는 걸음마기 자녀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걸음마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실제적 요구를 반영한 효과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위해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권영배(2005). 가족체계 이론을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민정(2008). 공격적 유아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검증: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보영(2005). 어머니 양육태도, 영아의 성, 보육기간에 따른 영아의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경(2000). 우리 아이가 미운 짓을 시작했다. 서울: 한울림.
- 김영수(2003). 어린이집 부모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옥·구향숙(2006). 청소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 81-97.
- 김정원(1998).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원·이기숙(1999).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183-197.
- 김지은(2002). 영아기 부모교육 내용선정을 위한 요구조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8, 225-243.
- 김현미·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 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나종혜·김수연·안영규(2005).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원장, 교사, 부, 모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지*, 14(4), 505-519.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유명희(1996).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의 개발 및 실시. *아동학회지*, 17(1), 39-55.
- 노미경(2003).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어머니-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성혜(2002). 부모-자녀 관계증진을 위한 학교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수재·안홍석·이영미(1994). 어린이 건강과 영양. 서울: 수학사.
- 민숙영(2005). 유치원 부모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신영아(2007).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에 관련된 변인들: 아동의 성, 연령,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요구내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6), 11-20.
- 박은숙(2006).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실태와 학부모 요구에 대한 조사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정·김태련·이경숙·신의진(2007). 어머니-영아 안정애착 형성을 위한 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2(1), 21-42.
- 송영숙·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 안지영·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53-68.
- 안희정(2005). 부모효능감과 가족응집력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성희·유영달(2006).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D. W. Winnicott의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1-33.
- 윤소영(200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교육 참여도 및 요구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랑(2003). 자녀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에 따른

- 부모교육 요구 :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연 · 박중권(2005). *우리아이 이럴땐 어떻게?*. 서울 : 꿈이 있는 세상.
- 이원영 · 배소연(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 *아동학회지*, 21(2), 17-31.
- 이은화 · 김영옥(2000). *유아를 위한 부모교육*. 서울 : 동문사.
- 이혜련 · 최보가(2004). 유아의 개인 및 부모특성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5), 1-14.
- 정문자(1992). 유치원 교사와 어머니의 부모교육 내용 요구 조사. *유아교육연구*, 12, 163-185.
- 정문자 · 어주경(2000). 저소득층 어린이집 교사와 유아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요구도 비교. *유아교육연구*, 20(3), 23-46.
- 정문자 · 어주경 · 김혜금(1992). 유아교육 현장에서 어머니의 부모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1), 267-282.
- 정영숙 · 전은희(1996).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한국생활 과학회지*, 5(2), 37-52.
- 조영숙(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련성 탐색.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옥분 · 박성연 · Rubin, K. · 윤종희 · 도현심(2002).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억제 :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4), 71-88.
- 최미경 · 신정희 · 구현경 · 박선영 · 한현아 · 최단비 (2008).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지식수준 및 요구도. *아동학회지*, 29(5), 227-242.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 407-412.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approach. *Child Development*, 55, 85-96.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Vol.2)*. New York : Basic Books.
- Brody, G. H., Flore, D. L., & Gibson, N. M. (1999). Linking maternal efficacy beliefs, developmental goals,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competence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5), 1197-1208.
- Cruse, S., Carlson, C., & Kontos, S. (1981). Parent education needs and sources as perceived by parent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9(3), 221-231.
- Erickson,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 Erickson, E.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Monograph 1*.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Jacobson, A. L., & Engelbrecht, J. (2000). Parenting education needs and preferences of parents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8(2), 139-147.
- Johnston, C., & Mash, E.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Murphy, J. (2004). *The secret lives of toddlers : A Parent's Guide to the Wonderful, Terrible, Fascinating Behavior of Children Ages 1 to 3*. New York : Perigee book.

2009년 2월 28일 투고, 2009년 5월 6일 수정
2009년 5월 7일 채택